

BREAKING BARRIERS

everybody belongs ■ everybody serves

장애를 넘어서, 모두가 속하고 모두가 섬기는

<장애를 넘어서>는 북미주 개혁신교회 (CRC)와 미국개혁신교회 (RCA)의 장애우 사역부에서 발행하는 계간 소식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형제들이 교회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함께 치워갑시다.

번역자 주: 이 계간 소식지 영문 제호 <Breaking Barriers>의 한국어 번역은 과거 <장애물 헐기>로 번역해왔지만, 이번호부터는 긍정적인 표현을 담은 <장애를 넘어서>로 변경하여 발행합니다.

2020년 가을호 - 장애인의 여행

장애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아주 어렵지는 않더라도 도전적일 수 있고, 이런 모험의 기억은 교훈적이고, 아프고, 재미있고, 또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경험의 일부를 나눕니다.

사지마비 설교자의 여행

조엘 반델 몰렌
제이 북미주 개혁신교회, 펠라, 아이오와주

저가 세 살 때 가족과 저는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각한 척수 손상으로 어깨 아래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자가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인공 호흡기와 다른 모든 의료 용품을 챙겨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부모님과 저는 지난 35년 동안 여러 차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 여행 중 하나는 제가 2017년 CRC 중부평원 노회에서 권면권을 받은 때였습니다. 한 친구 목사가 저를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초대했지만, 그 교회는 우리집에서 약 550 마일 떨어진 켄터키 주 루이빌 근처였습니다.

저는 기계에 의지하여 숨을 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군가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24시간 내내 저를 돌보며 여행할 수 없어서 밤에 돌봐 줄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바쁜 일정의 4명이 함께하는 여행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일정과 호텔을 살펴보는 등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출발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예상치 못하게 며칠간 입원하게 되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출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간의 여행을 위한 짐을 꾸리려면 많은 가방과 그 속에 모든 짐이 빠짐없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짐을 싸고 저의 짐, 부모님 짐, 그리고 간병인 짐까지 차 안에 실는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설교 계획도 시간과 기도가 필요했지만, 저는 금요일 저녁에 살피본 뒤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차로 이동하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는 친구 부부를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좋았지만, 그날 저녁은 제가 인도할 예배를 위한 이동경로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주일 아침에 도착하니, 교회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대에는 경사도가 있어 무대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되어 반가웠습니다. 계획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날 아침 두 번이나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설교를 해왔지만, 모두 준비가 덜 번거로운 아이오와 주 안에서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호 주제

2021년 겨울호 - 원치 않는 접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떤 면에서 일부 장애인의 장벽을 제거하여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공동체와 공간에 접근하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립되고 거리를 두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원치 않는 접촉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400단어)를 10월 30일까지 보내주세요.

2021년 봄호 - 인종과 장애

대니얼 프루드는 흑인이나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흑인, 원주민 또는 유색인종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고 계신다면, 2021년 1월 29일까지 당신의 이야기(400단어)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실망스럽기도 했던 유람선 여행

실 스코르자
삼위일체 개혁 교회, 오렌지 씨티, 아이오와 주

저는 하반신 마비입니다. 2004년, 저의 아내 필과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발트해를 지나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네덜란드-미국 유람선 왕복표를 샀습니다.

우리는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세 명의 남자 승무원이 저를 통로쪽 좌석에 앉히려려고 도왔습니다. 비좁은 곳에서 애쓰다가 결국, 저를 비행기 바닥에 앉혔습니다. 유럽에서 첫번째 정거장은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여승무원 두 명이 비단처럼 부드럽게 저를 통로쪽 좌석에 앉혀주었습니다. 부상은 없었습니다.

덴마크에 도착해서 유람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해안가 빗방울을 무시하며 코펜하겐의 보행자 전용 도로를 거의 5 마일 정도 누볐습니다. 합병증은 없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탈린에서 유람선을 탈 때는, 휠체어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친 표면인 자갈포장길(cobblestones)을 만났습니다. 18세기 왕실 궁전이 부두에서 1마일 이내였기 때문에 우리는 버텼습니다. 우리는 궁 앞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광장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영어를 구사하는 관광객들까지 찾았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적지는 웅장한 박물관과 캐서린 여왕의 멋진 궁전이 있는 러시아의 전 수도인 상트 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우리 배가 네바 강에 정박해 있는 동안, 우리는 해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에 장애인 승승가능한 택시(accessible taxi)가 없어서 제가 배에서 내릴 수 없게 되어 매우 실망했습니다. 필은 많은 그림과 많은 역사적 이야기가 담긴 소책자를 수집해서 보여줬지만, 실제로 방문하는 것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보게 된 것으로도 저는 주님께 감사했고, 저는 여전히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강 중 한 곳에 정박한 배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장애인용 택시(accessible taxi)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저는 핀란드 문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스를 가장 잘 하는 내 친구는 아이오와 주 드모인의 핀란드계 미국인이기 때문이고, 또 저의 첫 국제우편-체스 지부 중 하나가 핀란드 북부에 있는 선수를 배정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도에서 매우 따뜻한 접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톡홀름의 국왕 궁전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왕가가 스웨덴 국민과 일상을 함께 하는 책임을 다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북유럽을 가로지르는 기억에 남는 유람선을 즐겼고, 홀랜드-아메리카 회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더 많이 여행해보라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멀미의 문제

미셸 기슬링크
제일 복미주 개혁교회, 몬트리올, 퀘벡

저에게 여행은 주로 멀미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교통을 타든, 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뱃속에 고체가 액체보다 더 많이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미하게 됩니다.

저는 여행 중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저는 창밖으로 잘 알려진 명소를 바라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쇼핑물에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길을 가는지 간에, 내가 앉는 위치가 토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TV 미니시리즈 메이데이(Mayday)에 따르면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으려면 비행기 뒷좌석이 가장 안전하다지만, 저는 보통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 점심을 토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는 것은 추락사고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비행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토하는 것이고, 땅위에서도 평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가신 일이며 가능한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랜드 래피즈로 비행기 여행을 하는 동안 토하고, 환승하려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또한 혹시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 여행 가방을 들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멀미를 조절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기는 하지만, 약효가 12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졸음이 옵니다. 항정신성 진정제와 더해지면 너무 졸려서 잠비가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는 건 침대에 눕는 것뿐이지만, 그러려면 아직도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의 복을 세어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장애인 친구들의 여행은 저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수상 소식과 과월호 구독안내

CRC와 RCA의 장애인 연합사역인 본 뉴스레터와 장애인사역 블로그(network.crcna.org/disability)는 올해 교회연합연론에서 수여하는 분야별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이 여름호 외에 <장애를 넘어서>의 과월호는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과월호는 CRC(www.crcna.org/disability)와 RCA(www.rca.org/disability)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여행

툼 보스

크로스로드 헬로우십 북미주 개혁교회, 드모인, 아이오와

시각장애인인 저는 시카고에서 아내를 만나 돌아오기 위해 드모인에서 항공편으로 혼자 여행하는 것이 불안했지만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장애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돕는 좋은 일을 해왔고, 휴대폰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과 연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딸이 저를 드모인 공항에 내려주고 창구에 맡겼습니다. 체크인 하자 직원이 와서 검색대를 지나 게이트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나를 가장 잘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신중하게 물었고, 저는 그녀의 팔꿈치를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도와서 비행기로 내려갔고, 승무원이 제 배정된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주머니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을 즐기기 위해 의자를 눕혔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하자, 한 직원이 게이트에서 저를 만나 현관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저의 아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저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휴대폰만 있어서 수하물 찾는 건 안 해도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공항에 마중 나와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 등 돌아오는 여행도 똑같이 잘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계획, 인내, 유연성

나는 몇 년 전 오토바이를 타고 일주일 간 여행을 하는 남자가 그저 바지 뒷주머니에 칫솔을 꽂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여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여행자가 장애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저의 아내 베브는 그녀의 뛰어난 계획의 은사를 사용하여 여러 장애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큰 딸 니콜을 위해 가방 두 개를 꾸렸습니다. 베브는 일상용품을 한 가방에 넣고 다른 가방에는 캐놀러, 프로브, 튜브, 주사기, 약품 등 모든 것을 채워 니콜의 일상적 필요와 잠재적인 응급상황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 명소와 숙박시설의 접근성, 주요 병원과의 근접성, 미세먼지(air quality)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코너스와 로키, 키웨스트(플로리다)와 맥키나섬(미시건)으로의 여행을 즐겼습니다. 좋은 계획과 인내, 그리고 유연성으로, 우리는 이러한 여행이 잘 되도록 만들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개혁교회와 북미주개혁교회의 장애우 사역부에서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를 넘어서'를 발행합니다.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게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들 중 몇 명이 어떻게 여행을 해냈는지 들립니다. 우리들 중 일부는 많은 사전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마을과 바다를 가로질러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와 창조라는 선물을 경험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크 스티븐슨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국개혁교회가 함께 섬기는 장애우사역
crcna.org/disability
rca.org/disability

© 2020년 CRC/RCA 장애인 사역부
 <장애를 넘어서>는 CRC 장애우사역부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및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와 RCA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의 CRC 장애우사역부 디렉터 마크 스티븐슨 목사 (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와 RCA 장애우사역부 코디네이터 테리 드영 목사(616-541-0855; tdeyoung@rca.org)가 펴내는 계간지입니다. 출처를 밝히시면 전제와 재배포가 가능합니다.